〈황다랑어〉

〈눈다랑어〉

산호 삼각지대 참치 씨 마른다

〈동남아시아 해역〉

무차별 남획에 고갈 위험
세계 자연보호기금 경고

이른바 '산호 삼각지대'로 불리는 아시아 해역에서 주요 참치 종들이 남획으로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경고했다.

WWF는 최근 참치잡이 국가들이 지중해에서의 참치잡이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그 여파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동티모르 등으로 둘러싸인 산호 삼각지대까지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고있는 이 해역은 전세계에서 잡히는 참치의 89%가 이동 경로로 사용하는 곳이며 청새치와 눈다랑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인기 참치종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일본과 스페인 등 참치잡이 국가들은 최근 지중해의 참치 개체 수가 회복되고 산란지가 충분한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이 곳에서 청새치 잡이를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WWF는 이에 따라 더 많은 잡치잡이 배들이 산호 삼각지대로 몰려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세계가 공유하는 자원 관리 방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모두가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수자원 관리 '담수 지도' 나왔다

국경 초월한 273개 대수층
유네스코 세계 최초 작성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세계 최초로 국경을 초월한 담수 대수층(帶水層) 지도를 작성, 수자원 관리에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유네스코는 지난 2000년부터 산하 기구 국제 물 프로그램이 작성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소한 두 나라가 공유한 대수층 273개의 위치와 수질, 재충전율 등을 명시한 지도를 작성했다.

이 가운데 68개는 남북미 대륙에, 38개는 아프리카에, 65개는 동유럽에, 90개는 서유럽에, 12개는 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다.

지하 대수층은 모든 대륙에 존재하지만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반도, 미국 서부 지역 대수층은 지구 기후가 지금보다 훨씬 건조했을 때 형성돼 더 이상 물이 보충되지 않고 있다.

지하 대수층에는 지구 표면에 흐르는 담수량의 100배나 되는 물이 담겨 있지만 인구 폭발과 관개 확대 등으로 국가 간에 물을 둘러싼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연합뉴스

바다 속 탄소 흡수위해 철분 뿌린다?

美 환경기업 자금 모금 나서
'런던협약' 찬반 양론 맞서

바다 속에 탄소를 흡수시키기 위해 철분을 뿌려 해조류를 기른다는 방법이 과연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최상의 선택일까.

이번주 열리는 유엔 국제해사기구(IMO) 산하 해양오염 방지 조약인 '런던 협약'에서 이 같은 방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설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27일 보도했다.

대표적인 찬성론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환경 기업인 '클리모스'.

이 회사는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해조류를 기르기 위해 남쪽 바다에 철분을 뿌리는 방식을 시험하기 위한 자금 모금에 나설 계획이다.

클리모스 소속 과학자인 마거릿 레이닌은 "전 세계는 탄소 배출을 통제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 완화 연구소'의 테리 바커 소장은 "인간이 내다 버린 화학 물질 만으로도 바다는 이미 충분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습지 파괴 중단" 순천 선언문 채택

'세계 습지 NGO 대회'가 지난 24일부터 3일간 순천시와 경남 창녕에서 열려 국내외 NGO 관계자 400여명이 습지 보전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천혜의 습지로 평가받고 있는 순천만 갈대밭을 시민들이 걷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세계 습지 NGO 대회 폐막

국내외 전문가 400명 참석…연안습지 보전 촉구
순천 '녹색 성장 선도도시 만들기' 협약식도 가져

28일 개막된 2008람사르총회에 앞서 지난 24일부터 한국NGO네트워크 주최로 순천과 경남 창녕에서 열린 '세계 습지 NGO 대회'가 지난 27일 '순천선언문' 발표와 함께 폐막했다.

◇'순천선언' 채택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습지를 위한 NGO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NGO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해 습지 보전을 논의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논의 끝에 '순천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정부 기관과 지방정부, 전문가, NGO로 구성된 '국가습지위원회' 구성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지 않는 모든 습지 보전 필요 ▲습지 파괴 중단 등을 결의했다.

이어 "한국의 많은 습지가 대운하 건설과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 등으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파괴에 직면했다"며 "한국정부와 NGO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회식을 마친 뒤 참가자들은 연안습지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순천만을 방문해 '생명의 나무'를 심고 순천시와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성장 선도도시 만들기' 협약식을 가졌다.

◇습지보전방안 논의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NGO관계자들이 습지 보전과 람사르협약에 대한 NGO의 역할, NGO의 시각에서 바라본 습지의 현명한 이용, 한반도운하의 습지파괴, 새만금 간척사업이 이동성 도요물떼새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습지 보전과 람사르 협약에 대한 NGO의 역할'에 대해 기조발표한 람사르 사무국 아시아-대양주 담당 고위 자문의 루영 박사는 "국가들은 시민들의 생계에 있어 습지의 중요성, 빈곤 척결과 습지의 중요성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해 습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루영 박사는 "국제적으로 중요하지만 정부가 람사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우리는 람사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똑같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 일부 국가 습지가 간척사업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해당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꼼꼼히 알아본 후 효과적인 습지 보전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람사르의 5가지 목표는 ▲현명한 사용 ▲람사 리스트의 개발 ▲국제협력 ▲협약 실행 ▲협약의 멤버쉽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지켜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의 습지'에 대해 발표한 NGO네트워크 박중록 공동집행 위원장은 "우리나라 정부는 연안습지에 대한 목록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켜야 할 연안습지를 계속 매립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갯벌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갯벌이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 갯벌의 50%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우리 정부는 환경 영향평가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습지관리 체계도 부실하다. 특히 실효성 없고 모호한 용어 설정 등 큰 결함을 가지고 있는 습지 보전법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다"며 "연안습지 보전에 대한 강력한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8람사르총회를위한한국NGO네트워크'는 지난 2월 습지 보전 정책의 개선과 국민의 인식을 증진시키고자 결성됐으며 최근 정부의 반(反) 습지 정책에 반발해 독자적으로 '세계 습지 NGO 대회'를 개최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온실가스 배출없는 '핵 항공기' 개발 될까

英 학자, 핵 잠수함서 방사능 안전성 입증
지구온난화 방지 … 프로젝트 실용화 촉구

핵추진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에 수많은 승객을 실어나르는 중요한 운송수단이 될지도 모른다. 28일 영국의 일간 더 타임스 온라인판은 영국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항공기의 환경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는 '오메가 프로젝트'의 책임자 이언 폴 교수(크랜필드대 항공공학과)가 온실가스 배출 염려가 전혀 없는 핵추진 항공기 개발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석유 연료를 재급유할 필요가 전혀 없는 핵추진 항공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장거리 '논스톱' 여행을 가능케 하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아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폴 교수는 28일 오후(현지시각) 영국 왕립항공공학회에서 할 강연에서 냉전 시대에 미국이 벌인 실험에서 이미 핵추진 항공기가 기술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항공업계가 화석연료에서 핵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영국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폴 교수에 따르면 이 아이디어는 이미 50년 전에 증명이 됐지만 핵추진 비행기가 실제로 운항할 수 있기까지 대중을 설득하는 시간이 30년 가량 걸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핵추진 항공기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승객과 승무원들이 원자로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격리될 수 있는가 여부다.

이에 대해 폴 교수는 "이미 핵추진 잠수함에서도 (방사능 차단이) 잘 이뤄졌다"며 "원자로를 엔진과 함께 날개 바깥쪽에 장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